

[1] 형제들이 매우 먼 곳에서 일하게 되어 규정된 시간에 성당에 올 수 없고, [2] 또 아버스가 사실이 그러함을 인정하고 있다면, [3] (그 형제는) 일하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일을 바칠 것이며,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에서 무릎을 꿇고 할 것이다.

[4] 이와 마찬가지로 여행에 파견된 사람들도 규정된 시간경들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, 할 수 있는 대로 사사로이 바쳐 섬김의 분량을 완수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.